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2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2%	28번	(독서 : 사회) - 단순 비교 추론
오답률 4위	37%	20번	(독서 : 인문)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3위	42%	41번	(독서 : 기술) - 지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고난도 추론
오답률 2위	55%	30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60%	42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시가 : 박인로, ‘누항사’ / 고전소설 : 유득공, ‘유우춘전’

[문법] 12번, 13번, 14번

[독서] 기술 지문 : 터치스크린패널(TSP)의 접촉 인식 원리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2%) 예측] : 독서-사회 28번 문항

[단순 비교 추론]	
[Killer-Point]	<p>28. ㉠,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피고는 ㉠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② ㉠이 성립하려면 문제가 된 증권이 거래된 시장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③ 원고가 부실 표시가 있는지 모르고 해당 증권을 거래하였다면 ㉡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손해액의 일부가 부실 표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도 ㉡이 성립할 수 있다. 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부실 표시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과 ㉡이 모두 성립해야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선지이기는 하다. 부실 표시가 있는지 모르고 거래했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부실 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래했을 때는 성립한다는 것인데, 부실 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증권을 거래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부실 표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증권을 거래했다면 오히려 원고의 책임으로 봐서 손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p> <p>물론 이정도 생각으로 선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손해 인과관계의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손해 인과관계의 성립 요건은 2가지이다.</p> <p>1) 피고의 부실 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2) 원고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p> <p>즉, 원고가 거래 당시에 부실 표시가 있는지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가 거래 당시에 부실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거래를 했든, 부실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거래를 했든, 부실 표시가 있었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인과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p>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 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p> <p>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p> <p>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p>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2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답 : ①]

[오답률 4위(37%) 예측] : 독서-인문 20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2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기 > —

갑은 지지도 기준을 적용하여, 논증 A와 논증 B를 구분하였다. 논증 A에서 전제 1의 지지도는 0.2, 전제 2의 지지도는 0.4인데,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은 0.52이다. 논증 B에서 전제 1의 지지도는 0.3, 전제 2의 지지도는 0.3인데,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은 0.8이다. 갑은 논증 A는 ([가]) 방식의 논증, 논증 B는 ([나]) 방식의 논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갑은 두 논증에서 각각 전제 1을 제거한 후 결론이 성립할 확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에서 이 확률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ller-Point]

	[가]	[나]	[다]
①	결합	수렴	논증 A
②	결합	수렴	논증 B
③	수렴	결합	논증 A
④	수렴	결합	논증 B
⑤	결합	결합	논증 A

[정답 : ④]

어려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칫 생각이 꼬이면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지문 내용과의 연결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논증 A와 논증 B가 각각 수렴 방식인지 결합 방식인지를 판단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을 지문에서 빨리 끌고 올 수 있어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논증 A는 전제 1과 전제 2의 보통 합이 $0.52(=0.2+0.8 \times 0.4)$ 로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0.52)과 일치한다. 따라서 논증 A는 수렴 방식의 논증이다.

논증 B는 전제 1과 전제 2의 보통 합이 $0.51(=0.3+0.7 \times 0.3)$ 로, '전제들이 모두 주어질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0.8)이 보통 합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논증 B는 결합 방식의 논증이다.

2문단에 따르면 일부 전제를 제거했을 때 결합 방식에서는 나머지 전제들의 지지도가 강하게 영향받고 수렴 방식에서는 약하게 영향받는다.

그러므로 전제 하나를 제거할 때 결론이 성립할 확률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결합 방식인 논증 B일 것이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α ×성과'(0 $\leq\alpha\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α 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한다.
-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해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한다.
-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한다.

- | | | |
|------|----|----|
| ㉠ | ㉡ | ㉢ |
| ① 증가 | 감소 | 감소 |
| ② 증가 | 증가 | 감소 |
| ③ 증가 | 감소 | 증가 |
| ④ 감소 | 증가 | 증가 |
| ⑤ 감소 | 증가 | 감소 |

[정답 : ①]

[오답률 3위(약 42%) 예측] : 독서-기술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고난도 추론]

[Killer-Point]

41. 밑글의 <그림>을 통해 ㉠에 대해 설명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1, X2, Y1, Y2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1, Y2)와 (X2, Y1)뿐만 아니라 (X1, Y1)과 (X2, Y2)에서도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 ②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1, X2, Y1, Y2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1, Y2)와 (X2, Y1)뿐만 아니라 (X1, Y1)과 (X2, Y2)에서도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 ③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1, X2, Y1, Y2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과 다른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1, Y1)과 (X2, Y2)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 ④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2, Y1을 확인할 때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2, Y1)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 ⑤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2, Y1을 확인할 때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2, Y1)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정답 : ①]

이해도를 높게 가져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만한 문제이다. 마침 답도 ①이기 때문에 맞춘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와 틀린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가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된다.

(X1, Y2)와 (X2, Y1)에서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자.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라인'에서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된다. 따라서 접촉이 일어난 X1, X2, Y1, Y2 라인에서 모두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게 된다. 문제는 라인이 4개면 접촉점도 (X1, Y2), (X1, Y1), (X2, Y1), (X2, Y2) 4개가 된다는 것이다. (왜 4개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지문의 <그림>을 꼭 참고하자.)

결국 실제 접촉된 접촉점은 (X1, Y2), (X2, Y1) 2개인데, 실제 감지되는 접촉점은 (X1, Y1)과 (X2, Y2)를 추가한 4개가 되기 때문에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석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정도 이해도를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오답 선지들을 지울 수는 있다.

지문의 표현을 보자.

'다중 접촉이 일어날 경우 비접촉 지점까지 접촉 지점으로 인식되는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 표현을 놓고 봤을 때 '고스트 현상'은 접촉 지점+비접촉 지점이 모두 감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③, ④, ⑤번 선지는 지워진다.

③번 선지는 비접촉 지점만 감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④, ⑤번 선지는 1개의 접촉 지점만 감지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그러면 ①, ②번 선지 2개가 남게 된다. 그런데 지문에서 '자기 정전용량 방식'은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면 접촉 지점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된다고 한 ②번 선지도 지울 수 있다. 그러면 ①번 선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 - 2008학년도 3월 모의평가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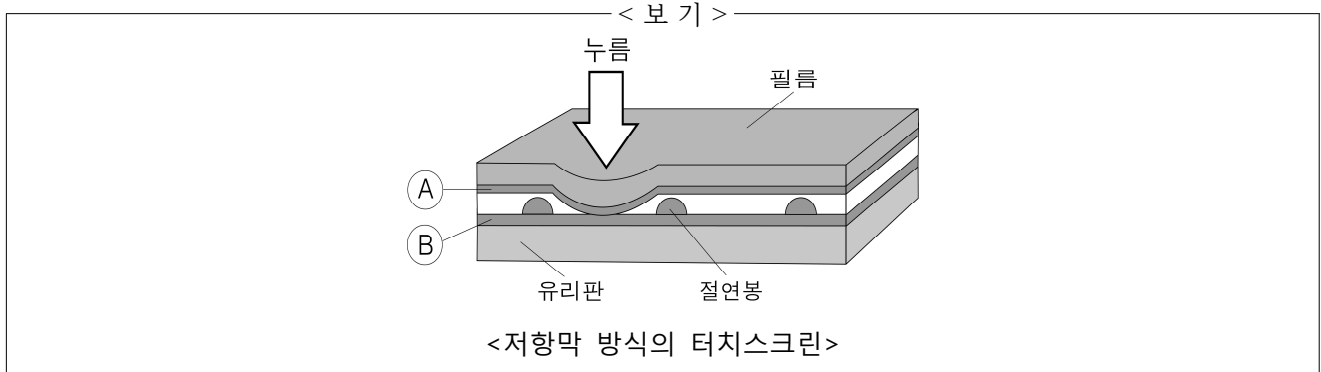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

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돌돌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 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28. 윗글을 읽고 <보기>에서 '저항막'을 ㉠, ㉡와 같이 설치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도 정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②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③ 휴대가 간편해지도록 터치스크린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⑤ 절연봉을 이용해 화면에 선이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정답 : ①]

[오답률 2위(약 55%) 예측] : 독서-사회 30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인 B사는 2018년 9월부터 중소기업인 A사와의 합병 가능성을 놓고 A사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2018년 12월에 실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A사 측에서는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시 서류를 세 번이나 공표하였다. 그러다가 A사는 2018년 12월 18일에 자사 증권의 거래 정지를 요청하면서, B사와의 합병 협상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에 A사는 B사의 매수 제안을 승인하였고 이를 공표하였다. 그러자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했던 2018년 10월의 첫 번째 공표와 2018년 12월의 증권 거래 정지일 사이에 A사의 증권을 매도하였던 투자자들은 부실 표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A사의 공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자들에게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9년 12월 시장 사기 이론을 적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들은 이 판결에 따라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Killer-Point]

- ① 2018년 10월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한 사람들은 거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겠군.
- ② 원고들은 피고들이 B사와의 합병 협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부실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③ 각 원고가 받는 손해배상액은 그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과 매도할 때 받은 금액의 차액이겠군.
- ④ 법원은, 원고들이 부실 표시를 반영한 가격을 신뢰하여 해당 증권을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겠군.
- ⑤ 법원은, A사와 B사의 합병 협상 소식을 알았다면 해당 증권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겠군.

[정답 : ⑤]

타임라인이 제시되었으니, 정리를 해보자.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타임라인에 맞게 끊어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 판단 과정에서 헛갈리지 않도록 끊어가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9월	A사와 B사의 합병 협상 시작
2018년 10월	첫 번째 공표(부실 표시)
2018년 12월 18일	합병 협상(부실 표시) 인정 및 증권 거래 정지
2018년 12월 19일	매수 제안 승인 및 공표
↓	
투자자들 A사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	
2019년 12월	법원, 시장 사기 이론을 적용하여 투자자 승소 판결

<보기>가 길고 정보량이 많은데, 정답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사기 이론을 적용'하였다는 내용만 놓치지 않았으면 된다.

지문에 따르면 '시장 사기 이론'은 원고에게 '거래 인과관계', 즉 부실 표시가 거래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시장 사기 이론'에 따른다는 것은 부실 표시가 거래의 원인이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사기 이론을 적용한 법원에서 부실 표시가 원인이 되어 해당 증권을 매도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6학년도 수능 A/B 공통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정답 : ⑤]

[오답률 1위(약 60%) 예측] : 독서-기술 4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㉗ 구동 라인이 m개이고 감지 라인이 n개인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패널에서, 컨트롤러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모든 교차점에 대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산출한 정보를 프레임 정보라고 한다. 기기의 전원이 온(on) 상태가 되면, 컨트롤러는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여 운영 체제에 전달하기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프레임 정보는 초당 100회 이상 산출되어야 부드러운 접촉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임 정보의 산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㉘ 구동 라인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모든 감지 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오작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Killer-Point]

- ① ㉗의 하나의 프레임 정보에서 모든 교차점의 정전용량이 기준값과 동일하다면 비접촉 상태로 판정되겠군.
- ② ㉗의 하나의 프레임 정보에서 세 개의 교차점의 정전용량이 기준값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겠군.
- ③ ㉘를 개발하여 적용한 ㉗에서 컨트롤러가 하나의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n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군.
- ④ ㉘가 적용되지 않은 ㉗에서 컨트롤러가 초당 100회의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초당 $100 \times (m \times n)$ 번의 확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겠군.
- ⑤ ㉘를 개발하여 적용한 ㉗는 가로축 라인 및 세로축 라인의 개수가 각각 m개와 n개인 자기 정전용량식보다 접촉 위치의 판정 시간이 더 짧겠군.

[정답 : ③]

일단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에서 '상호 정전용량 방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정전용량 방식'은 지문에서 (4x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로선(구동 라인) 하나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세로선(감지 라인)을 하나씩 순서대로 점검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X1에 전압이 들어가 있는 동안 Y1, Y2, Y3를 하나씩 점검하기 때문에 가로선 하나에 세 번의 세로선 점검 작업이 필요하고 가로선이 4개이기 때문에 점검 작업은 총 12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㉘를 보면, 가로선에 전압이 들어가 있는 동안 모든 세로선을 '한 번에' 점검한다고 한다. 즉 가로선 하나에 한 번의 세로선 점검 작업만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㉘의 방식을 활용했을 때 필요한 총 점검 작업의 횟수는 가로선의 개수(=m개)만큼만 필요로 하게 된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국어의 ‘ㅎ’ 종성 체언]

-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의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다. 그 예로 ‘똥(똥), 갈(갈), 가흠(가을), 겨슌(겨울), 열(열), 하늬(하늘), 나랏(나라), 앓(앓), 술(수), 앓(안)’ 등이 있다.
-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 → 나라 / 나랏
 - ‘ㅎ’ 종성 체언이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나타날 때 ‘ㅎ’ 없이 쓰인다.
- 나라ㅎ + 이(주격 조사) → 나라히
 - ‘ㅎ’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나타날 때 종성 ‘ㅎ’이 연음되어 나타난다.
- 나라ㅎ + 과(부사격 조사) → 나라과
 - ‘ㅎ’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축약되어 ‘ㅋ, ㅌ’으로 나타난다.

[참고] ‘암’과 ‘닭’이 결합한 합성어가 ‘암탉’이 되는 이유 : ‘ㅎ’ 종성 체언의 흔적

앓 + 똥 → 암탉

술 + 똥 → 수탉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대 국어의 ‘암탉’에서 ‘닭’이 ‘똥’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암’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ㅎ’ 종성 체언인 ‘암ㅎ’였고, 이 ‘ㅎ’이 ‘닭’의 ‘ㄷ’과 만나 ‘탉’과 같이 거센소리로 축약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암컷, 수컷, 안팎’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의 ‘ㅎ’종성 체언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우이다.

[선택지 해설]

12. ㉞

정답해설 답은 ㉞야. 이 선지를 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대 국어의 평파열음에는 ‘ㄱ, ㄷ, ㅂ’이 존재한다는 거야. (다)는 현대 국어에서 ㅎ종성체언의 흔적이 드러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어. 먼저 ‘안팎’은 ‘안ㅎ + ㅂ’으로 ㅎ 뒤에 평파열음 ‘ㅂ’이 온 경우야. 다음으로 ‘암탉’은 ‘암ㅎ + 닭’으로 ㅎ 뒤에 평파열음 ‘ㄷ’이 온 경우야. 그런데 ‘땅’을 보자. 현대국어의 ‘땅’은 중세국어에서는 ‘ㅉ’임이 (가)에 드러나 있고, 근대 국어에서는 ‘ㅉ’임이 (나)에 드러나 있어. 즉, ‘ㅉ’ → ㅉ → 땅’으로 점차 변화해 온 거야. 이때 ‘ㅎ’ 뒤에는 평파열음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통해 우리는 ㅎ종성체언의 ‘ㅎ’이 평파열음과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되지 않고 ‘ㅇ’이라는 다른 음소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가)에서 ‘ㅉ해’는 ‘ㅉㅎ + 해’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대국어의 ‘땅’이 중세 때는 ‘ㅉ’임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가)의 ‘ㅉ’을 분석하면 ‘ㅉㅎ + ㅅ’으로 분석 가능한데 ‘ㅅ’은 관형격 조사에 해당해. 즉 ‘ㅉ’은 관형격조사 ‘ㅅ’ 앞에서 ‘ㅎ’이 탈락함을 알 수 있어.

②를 살펴보자. (나)의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암똥’도 나오고 ‘암똥’도 보여. ‘암똥’은 ㅎ종성체언의 흔적이 없는 예시이고 ‘암똥’은 ㅎ종성체언의 흔적이 존재하는 예시야. 현대국어로는 둘 다 ‘암탉’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지. 이를 통해 우리는 근대 국어에서는 ㅎ종성체언의 흔적이 없는 ‘암똥’과 ㅎ종성체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암똥’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가)의 ‘ㅉ해’를 통해 ‘ㅉ’이라는 ㅎ종성체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어. 그런데 (나)에서 이 ‘ㅉ’이 ‘ㅉ’으로 변화한 걸 볼 수 있어. 즉 ‘ㅉ’ → ㅉ’으로 단어의 형태가 변한 거야. 이렇게 형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ㅉ’ 뒤에 ‘ㅎ’이 있었기 때문이야.

④를 살펴보자. (나)의 근대 국어 시대에서는 ‘암똥’과 ‘암똥’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 하지만 (다)의 현대국어에서는 ‘암탉’으로 하나의 형태로만 정착되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직접 구성 요소]

- 개념 :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그 구성을 직접 구성하고 있는 요소
- 예시
 - 헛웃음 → 헛 / 웃음 / · 돌다리 → 돌 / 다리
 - 반짝반짝 → 반짝 / 반짝 / · 소금쟁이 → 소금 / 쟁이
 - 철수가 밥을 먹었다 → 철수가 / 밥을 먹었다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이승모T의 Tip

누군가가 직접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혹은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쪼개보기!'라고 대답하면 된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쪼개는 거고 그 쪼개서 나온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단어의 형성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묻는다면 결국 이것은 어근 + 어근이나 어근 + 접사냐. 이 와중에 쪼개놓은 어근이 또 쪼개지느냐 이런 걸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물고기'는 민물 / 고기로 쪼개진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모국어 화자의 직관이 개입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민/물고기로 쪼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민'과 '물고기'로 쪼개려면, '민'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민'은 독립해서 쓰일 수 없으니 접사이다. 접사 '민-'이 결합한 단어로 '민머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머리카락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접사 '민-'은 '그것이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즉, '민물고기'는 '물고기가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민/물고기로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를 나눌 때는 각각의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것의 합이 단어 전체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한편, 민물고기는 민물과 고기가 각각 사전에 있는 단어이므로 어근 + 어근의 구성이다. 근데 '민물'이라는 어근은 또 쪼개진다. '민-(접사) + 물(어근)이 그것이다. 즉 민물고기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한 성분이 파생어인 합성어가 된다. 이런 것을 단어의 형성에서의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 구분]에 대한 이승모T의 Tip

깨뜨리다의 어간이 무엇이고 어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어간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깨뜨리며 이렇게 하다보면 '깨뜨리-'가 어간, '-다'가 어미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실제 시험 때 헛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알려준다. '-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그래.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애를 집어넣어 보면 된다. 깨시뜨리다, 깨뜨시리다. 깨뜨리시다, 깨뜨리다시 중 '깨뜨리시다'가 적절하지 않나. 그럼 -시- 앞까지가 어간이 되고, 그 뒤가 어미가 된다. '-시-'는 모든 선어말 어미 중 가장 앞에 오기 때문이다.

[선택지 해설]

13.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이 문제의 선지들을 분석하기 전에 세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 첫째,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먹다'에서 '먹-', '예쁘다'에서 '예쁘-'가 어간에 해당해. 둘째, 파생어와 합성어를 판단할 때 어미 부분에 해당하는 '다'는 제외하고 판단하면 돼. '다'는 '접사'에 해당하지만 정확히는 '굴절접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생어를 판단하는 '파생접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야. 셋째, '직접 구성요소'란 단어를 처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 해. 이때 나누어진 두 부분 중 한 부분은 하나의 단어가 될 거야. 예를 들어 '헛웃음'의 경우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헛/웃음'이 되고, '웃음'은 '웃-(어근) + -음(명사파생접사)'로 하나의 파생어 단어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붙는지 확인하면 돼. '헛웃음'의 경우 파생어인 단어 '웃음'에 마지막으로 접두사 '헛-'이 붙었지. 그럼 마지막에 '접사'가 붙은 거야. 그렇다면 '헛웃음'은 파생어가 돼. 반면, 마지막에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가 되겠지. 예를 들어 '나들이웃'의 경우 파생어 '나들이'에 마지막으로 어근 '웃'이 붙어. 이에 합성어가 돼.

자 그럼 ④번 선지를 보자. '짓눌러'는 분석하면 '짓-(접사) + 누르-(어근) + -이-(접사) + -어(어미)'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형으로 설명할게. '짓눌리다'는 직접 구성요소 분석하면 '짓눌/리다'로 분석할 수 있어. 즉 '짓누르-' + '-이'라는 것이지. 쉽게 말해 짓누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짓눌리다가 되었고, 짓누르다는 다시 짓(접사) + 누르다(어근)이 되는 것이지. 즉 짓눌리다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한 성분이 파생어인 파생어에 해당한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짓눌리다'는 직접 구성요소 분석하면 '짓/눌리다'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이때 '눌리다'는 '누르-(어근) + -이-(피동 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고. 즉 '눌리다'

는 파생어에 해당해. 여기에 일부 동사 앞에서 ‘마구’, ‘함부로’, ‘몹시’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짓-’이 마지막에 붙었어. 정리하면 ‘짓 놀리다’는 ‘놀리다’라는 파생어 단어의 마지막에 접두사 ‘짓-’이 붙었으므로 ‘파생어’에 해당해. 무엇이 되든 답을 고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또한 ‘짓놀리다’에서 어간은 ‘짓놀리’로 ‘짓’, ‘놀’, ‘리’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맞아.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휘갈겨’는 분석하면 ‘휘-(접사) + 갈기-(어근) + -어-(어미)’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형으로 설명할게. ‘휘갈기다’는 직접 구성요소 분석하면 ‘휘/갈기다’로 분석할 수 있어. 이때 ‘갈기다’는 본 형태가 ‘갈기다’인 하나의 단어야. 즉 ‘갈기(어근)’인 하나의 단일어에 해당해. 이러한 단일어에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휘’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었어. 또한 ‘휘갈기다’에서 어간은 ‘휘갈기’로 ‘휘’와 ‘갈기’ 2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②를 살펴보자. ‘빗발쳤다’는 분석하면 ‘비(어근) + 발(어근) + 치-(어근) + -었-(어미) + 다(어미)’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형으로 설명할게. ‘빗발치다’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하면 ‘빗발/치다’야. ‘빗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내리는 ‘비’에 ‘실이나 국수 따위의 가늘고 긴 물체의 가락’이라는 의미를 가치는 ‘발’이 합쳐진 ‘합성어’야. 두 명사가 합쳐지면서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빗발’이 된 거야. 그리고 ‘치다’는 ‘치-(어근) + -다’로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에 해당해. 즉, ‘비’, ‘발’, ‘치’ 모두 어근으로, ‘빗발치다’는 3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 해당 해. 정리하면 ‘빗발치다’는 어간 ‘빗발치’가 ‘비’, ‘발’, ‘치’라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합성어’에 해당해서 답이 될 수 없어.

③을 살펴보자. ‘치숫다’를 분석하면 ‘치-(어근) + 숫-(어근) + -았-(어미) + -다(어미)’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형으로 설명할게. ‘치숫다’는 분석하면 ‘치-(접두사) + -숫-(어근) + -다’로 어근 ‘숫’에 접두사 ‘치’가 붙은 ‘파생어’야. 하지만 어간 ‘치숫-’이 ‘치’와 ‘숫’라는 2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⑤를 살펴보자. ‘떠받들고’를 분석하면 ‘뜨-(어근) + -어-(어미) + 받-(어근) + 들-(어근) + -고(어미)’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본형으로 설명할게. ‘떠받들다’를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떠/받들다’로 나눌 수 있어. 이때 ‘받들다’는 ‘받다’와 ‘들다’의 어근 ‘받-’과 ‘들-’이 합쳐진 합성어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근 ‘뜨-’가 붙은 합성어에 해당 해. 정리하면 ‘뜨다’라는 단일어의 어근 ‘뜨-’와 ‘받들-’이라는 합성어가 합쳐진 거야. 어간은 ‘떠받들-’로 ‘뜨’, ‘받’, ‘들’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은 문장]

안은 문장 :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도 한다.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ㅁ’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붓도록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영지가 잤아서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달이 구름에 가듯이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ㄹ수록’	해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말도 없이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 <u>학교에 가는</u>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 나는 <u>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u>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지가 없음.)

- ㉢ 코끼리가 코가 길다.
서울은 인구가 많다.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 <u>날씨가 너무 더워!</u> ”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 <u>쿵!</u> ”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u>저 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u>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u>숙제를 보여달라고</u> 했다.

[참고 자료][문장 출제 요소 정리]

	절 표시(전성 어미)	출제 요소
명사절	-음, -기	<p>역할 : 주어, 목적어, 부사어(격 조사로 판단), 보어(보기 힘듦) 관형어(순간적인 착각이나 함정 주의)</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p> <p>예시) <보기> : (승모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다. → (판단) 명사절이 주어 역할 → (선택지 출제) ①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 → ②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승모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 → ③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기 전) → ④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함정 주의) [보통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선택지를 보면 관형절을 떠올리기 마련, 명사절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만약 번거롭다면 ‘-기 전’을 외워두고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기억해두자.]</p>
관형절	-은, -는, -던, -ㄹ	<p>1)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3) 생략 여부 : 안긴 문장의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생략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 : 관계 관형절(중요)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 : 동격 관형절(잊지 말기)</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p> <p>예시) <보기> : (예쁜) 꽃이 피었다. → (판단) ‘-ㄹ’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꽃을 집어넣는다. / 꽃이 예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선택지 출제> ①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길을 집어넣는다. / 길이 좁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②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다. → ‘-는’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음식’을 집어넣는다. /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 → ③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승모가 밥을 먹은) 식당은 학원 앞에 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식당을 집어넣는다. / 승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것. → ④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동격 관형절 / 생략X)</p>

<p>부사절</p>	<p>-게, -도록, -듯이, -니까 -이(부사 파생 접미사)(없이, 같이, 달리)</p>	<p>1)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이(부사 파생 접미사) 없이, 같이, 달리처럼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된 단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p> <p>(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 부사절 승모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원래 ‘소리가 없다’ 즉 절이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민다. 즉 부사절이다. ‘없이’는 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p> <p>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 - 비가 와서 차가 막힌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비가 오다’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p> <p>2) 인용절 역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승모는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인용절 / 부사어의 역할)</p> <p>이처럼 부사절은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는 판단만 해주면 된다.</p>
<p>서술절</p>	<p>X(문장 형태에 익숙해지기)</p>	<p>1)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있느냐 3) 보어가 있는 홑문장과 구분할 수 있느냐</p> <p>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 이 집은(문장 전체 주어) (베란다가(주어) 넓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p> <p>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 친구는(문장 전체 주어) (얼굴이(주어) 많이 변했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 안긴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느냐(많이)</p> <p>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p>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p>인용절</p>	<p>라고(직접 인용), 고(간접 인용)</p>	<p>직접 ⇄ 간접 바꿔보기 승모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 부사어의 역할)</p>

[선택지 해설]

14. ㉓

㉑	나는 [내가 그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명사절(목적어 역할)
㉒	나는 [우리 강아지 없이] 못 살겠다. 부사절
㉔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명사절(부사어 역할)
㉕	나는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다. 관형절(주어 생략)
㉖	그는 [내가 자주 갔던] 놀이터에 서 있었다. 관형절(부사어 생략)

정답해설 답은 ㉓이야. ㉔의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에서 안은 문장은 '지금은 ~에 아직 이른다'이며, 안긴 문장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야. '우리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인 '-기'로 변해 명사절이 된 후, 안은 문장에 안겼어.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우리가 학교에 가기'라는 명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정리하면, ㉔에는 '명사절'이 안겨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사절'이 안긴 것이 아니야. 더불어, '우리가 학교에 가기'라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우리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으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㉑의 '나는 내가 그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에서 안은 문장은 '나는 ~을 깨달았다'이며, 안긴 문장은 '내가 그를 사랑했음'이야.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변해 명사절이 된 후, 안은 문장에 안겼어.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내가 그를 사랑했음'이라는 명사절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때, '내가 그를 사랑했음'은 완전한 문장이 '내가 그를 사랑했다'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어.

②를 살펴보자. ㉒의 '나는 우리 강아지 없이 못 살겠다'에서 안은 문장은 '나는 못 살겠다'이며, 안긴 문장은 '우리 강아지 없이'야. '우리 강아지(가) 없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로 변해 부사절이 된 후, 안은 문장에 안겼어. 이때 '우리 강아지 없이'는 완전한 문장이 '우리 강아지(가) 없다'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어.

④를 살펴보자. '나는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다'에서 안은 문장은 '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다'이며 안긴 문장은 '훌륭하신'이야. 이때 '훌륭하신'의 완전한 문장은 '선생님이 훌륭하시다'야. 이 문장에서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뀌고, 안은 문장과 같은 부분인 '선생님'이 생략되어 '훌륭하신'의 형태가 된 후 안은 문장에 속 안겼어. 즉 주어 '선생님이'가 생략된 채로 안겼어.

⑥를 살펴보자. '그는 내가 자주 갔던 놀이터에 서 있었다'에서 안은 문장은 '그는 놀이터에 서 있었다'이며 안긴 문장은 '내가 자주 갔던'이야. 이때 '내가 자주 갔던'의 완전한 문장은 '내가 자주 놀이터에 자주 갔다'야. 이 문장에서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으로 바뀌고, 안은 문장과 같은 부분인 '놀이터'가 생략되어 '내가 자주 갔던'의 형태가 된 후 안은 문장에 안겼어. 즉 '놀이터'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어가 생략된 채로 안겼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시가 [36~38번 지문] [박인로, '누항사']

"길흥화복을 하설기 부쳐 두 농항 김문 곳의 초막을 지어 두 풍조 우석에 석은 덩이 얹히 되어 서 흥 밥 닷 흥 죽에 연도 하도 할터"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209p)

[작품 '한눈'에 보기]

[내용 구성]

- 서사: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고자 함.
- 본사
 - 본사 1: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했던 왜란 회상
 - 본사 2: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음.
 - 본사 3: 소가 없어 소를 빌리려 감. [EBS 수록]
 - 본사 4: 소를 빌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옴. [EBS 수록]
 - 본사 5: 밤을 지새우며 탄식하다가 춘경을 포기함. [EBS 수록]
- 결사
 - 결사 1: 자연을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함. [EBS 수록]
 - 결사 2: 빈이무원하면서 충효·화형제·신봉우에 힘씀.

... 여권을 말로 너무 힘 배지 말고, 뒷번 '전문들이' 먼저 참고하기~

[가볍게 보는 '작품 Point']

① 자조적 태도

산골생활이 어떻냐고 묻자 대답으로 지었다는 「누항사」는 자신의 품성에 대한 자조적인 평가부터 시작된다.

"어찌개 세상 물정에 어둡고는 내보다 대한 사람이 없다. 길흥화복을 하설기 부쳐 두..."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인식은, 하늘이 내게 주시는 삶을 평화롭게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화자는 궁핍을 해결할 힘이 스스로에게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이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② 갈등 유발 요소

궁핍을 해결하려고 소를 빌리려는 등 갖은 노력을 하지만 화자의 가난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 가난은 화자가 태도를 바꿔 안빈낙도를 다짐할 때까지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즉 가난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화자는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화자가 처한 중요한 문제는 '가난'보다 '가난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누항사」의 화자는 강호에서 ‘안빈낙도’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전쟁 이후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대부로서의 삶과 생계를 위한 삶 사이에서 갈등한다. 고뇌하던 화자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후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게 된다.	
<보기> point	• [사대부로서의 삶(유교적 가치 삶의 추구)] VS [생계를 위한 삶(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궁핍)]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p> 어리고 우활(迂闊)*홀산 이니 우히 더니 업다 길흥화복을 하늘기 부쳐 두고 누항 김푼 곳의 초막을 지어 두고 풍조 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셔 흡 밥 닷 흡 죽에 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비 식일 썬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옴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하다 7올히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엿거든 병(瓶)이라 담겨시라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강호 훈 꿈을 꾸언 지도 오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서다 첨피기욱(瞻彼淇澳)*훈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들아 낙디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푼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야 남지 업슨 풍월강산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토리 업술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 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니 생애 이러호디 설운 뜻은 업노왜라 </p>

<p>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 훈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할 이 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 박인로, 「누항사」 -</p> <p>*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모름. * 숙냉: 송냥. / * 안빈 일념: 가난해도 편안히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 * 수의: 옳은 일을 좇음. / * 저어: 뜻대로 되지 않음. * 첨피 기욕: 저 물가를 바라봄. / * 빈이 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 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생활을 이르는 말.</p>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재팬’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p>작가가 임진왜란 후,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살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다.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으며, 안빈낙도(安貧樂道)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누항(陋巷)’이란 『논어』의 공자와 안희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제목은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貧而無怨)의 경지, 자연을 벗 삼아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언어를 폭넓게 사용하여 표현의 구체성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도 주목할 만하다.</p>
주제	곤궁한 생활상과 안빈낙도의 추구
확인해야 할 EBS 문제(수능완성 211P 44번)	
발문	쇼와 낙당을 중심으로 누항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p>① 화자는 주인이 ‘목 불근 수기 치’를 언급하자 ‘혈마 어이홀고’라고 하며 물러나는데, 이를 통해 ‘쇼’가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다. ② 화자가 ‘대승’이나 ‘농가에 대해 보인 반응은 ‘쇼’를 빌리지 못해 봄 농사를 짓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③ 화자는 ‘세정 모른 한숨’을 쉬면서 고민한 끝에 ‘낙당’을 떠올리고 있다. ④ 화자에게 ‘쇼’와 ‘낙당’은 남에게 빌려야 하는 것으로, ‘강호 훈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⑤ 화자에게 ‘낙당’은 ‘명월청풍’의 벗이 되어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p>
정답 해설	<p>정답. ④ 해설 : ‘쇼’는 이웃집 주인에게, ‘낙당’은 ‘유비군자’에게 빌려야 하는 대상이다. 화자는 농사를 짓기 위해 ‘쇼’를 빌리려 하지만 실패하고, 자연을 벗 삼아 욕심 없이 지내기 위해 ‘낙당’을 빌리려 하고 있다. ‘강호 훈 꿈’은 과거 화자가 가졌던 소망으로, 자연에서 평화롭고 한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는 전쟁이 끝나고 시골로 돌아와 궁핍하게 살면서 농사를 지으려 하지만, 그것마저도 ‘쇼’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자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포기하고 한때 가졌었던 강호 한정의 꿈을 떠올리며 자연을 벗 삼아 늙어 가고자 한다. ‘강호 훈 꿈’과 관련된 시어는 ‘낙당’에만 해당하므로, ‘쇼’와 ‘낙당’이 ‘강호 훈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p>

필수 고전 전문 읽기 “현대에 풀이는 기본이다.”

< 원문 >	< 현대어 풀이 >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로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운이 좋고 나쁨, 재앙과 복된 삶을 하늘의 뜻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매우 누추하고 지저분한 곳에 초가집을 지어 놓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아침 바람과 저녁 비 내리는 곳은 날씨에 썩은 짚을 땀감으로 삼아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밥 세 그릇에 죽 다섯 그릇 만드는 일에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설 데운 송농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덜 데운 송농으로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나의 생활이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가난해도 편안하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은 적더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어서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옳은 일을 좇아 살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추수기인) 가을에도 (곡식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는가.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겠는가.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배고픔과 추위가 내 몸을 굶는다고 한들 (안빈일념으로 살겠다는) 나의 단호한 결심을 잊겠는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의로움을 떨쳐 나의 몸을 돌보지 않아 죽어서야 (안빈일념을) 그만 두겠다는 마음을 먹어
자루와 주머니에 줌뽀이 모아 넣고	전대와 자루에 (이러한 마음을)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임진왜란 5년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채로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서 몇백 번의 전투를 치렀던가.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내 몸이 여유가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집안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긴 수염이 난 늙은 종

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가
 손수 농사짓기가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하다 할 이 없건마는
 아무리 갈고전들 어느 소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하여 시절(時節)이 다 늦은 제
 서주(西疇)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간 다어 두고
 소 한 번 주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굳게 닫은 문(門) 밖에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을 양구(良久)토록 혹은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내읍노라
 초경(初更)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거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는
 소 없는 궁가(窮家)에 혜염 많아 왓삽노라
 공하니나 값이나 주엄죽도 헐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건넌집 저 사람이

은 하인과 주인 간에分別이 있음을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갈이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지만, (종이 나를 섬
 기지 않으니 나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일이 나의
 분수인 줄 알겠노라.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리 (밭을) 갈고자 한들 (소 한마리 없는 가난한 형
 편에) 어느 소로 갈겠는가.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쪽에 있는 밭의 높은 논에다 지나가는 비가 잠깐 개
 었을 때,
 길 위를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
 (예전에 이웃 사람이) '소 한 번 빌려 주겠노라'고 영성
 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으로 '에헴' 소리를 오래토록 한 후에
 그렇게 하니 집 주인이 어, 거기 누구신가? (문기에)
 엄치없는 저입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집주인의 물음] 초경(저녁 7시~9시)도 거의 지났는데
 여기에 어찌 와 계십니까?
 [나의 대답] 해마다 이러하기(소를 빌리러 찾아오는
 것)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주인의 말] 공짜로나 값을 치거나 하여 빌려줄 만도
 하지만
 마침 어젯밤에 건넌집에 사는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雉)를 옥지읍(玉脂泣)게 구어 내고

갓 익은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를 어이 아니 갓을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였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설마 어이홀고

헌 먼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 오니

풍채(風採) 작은 형용(形容)에 개 짚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牕)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 내 한(恨)을 돋우느다

종조추창(終朝惆悵)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어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소뉘는 벗보님도 좋을세고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런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 두자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잊었도다

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목이 붉은 수평을 기름지게 구워 내고

갓 익은 삼해주(좋은 술)를 가져와서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갓졌습니까?

[주인의 말] (그래서 그 건넛집 사람에게) 내일 (소를) 빌려 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않으니 (약속을 반복하는) 말 씀을 드리기가 어렵구료.

[나의 대답]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헌 밀짚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이웃 집에서) 맥없이 어슬렁 물러나오니 볼품없는 내 모습에 개만 짚을 뿐이구나.

작고 누추한 집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겁게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쟁기의) 날도 좋구나.(=날카롭구나.)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만

(밭을 갈 일이 없어) 빈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봄농사를) 팽개쳐 던져버리자.

(생계 때문에) 강호(자연)와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지도 오래 되었는데, 먹고 사는 일이 누가 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안타깝게도 잊었도다.

저 물가를 내려다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낚시대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허라

다툼 이 업슬손 다만 인가 너기로라

두세 이랑의 논과 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粥)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해도 서러운 뜻은 없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할 이 누가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시대 하나 빌리자구나.

갈대꽃이 핀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저절로 (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를) 오라 하겠는가, 오지 말라고 하겠는가.

다툼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자연을 벗삼아 늙는 삶)뿐인가 생각하노라.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음식이)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재물)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빈천이) 물러갈 것이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부귀가) 오겠는가.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과 상관없이 생겼겠느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나의 생활이 이렇다 해도(빈곤하다고 해도) 서러운 뜻은 없노라.

대나무 도시락과 표주박의 물을 먹는 가난한 삶도 족히 여기고 있노라.

평생의 (내가 품은)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구나.

태평한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타고난 (생긴) 대로 살겠노라.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비문과 탄식 그리고 수동>, 평가원 - '2016학년도 9월 정훈, 「탄궁가」"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개]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쭈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썽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젖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싸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襄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야 여의려뇨

[내]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협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냐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 원헌 :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 싸리피, 바랭이 : 잡초의 일종.
- * 장초의 무지 :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문제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정답 해설	⑤ [가]에는 봄이 되어 농사를 지으려니 농기구도 없어서 빌려와야 하고, 농기구를 빌려 와 씨앗을 찾아보니 볍씨 한 말은 쥐가 반 이상 먹어버렸고, 기장, 피, 조, 팔은 겨우 서너 되 남아 있어 춥고 굶주린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과 탄식이 드러나 있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전송하면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라고 하니, (가난귀신이) 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이별할 일이 없었는데 어디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며 우는 듯 꾸짖는 듯 협박하는 의인화된 가난귀신과 화자와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가난귀신의 말에 설득적 어조가 있지만, 이것을 화자의 의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가]에는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구체적인 소재(쟁기, 호미, 올벼, 기장, 피, 조, 팔 등)가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추상적인 소재(가난귀신)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궁핍한 현재 상황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대화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는 표현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가]에는 농기구도 없고, 농사지를 씨앗도 없고, 남은 곡식도 없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③ ㉢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④ ㉣ :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⑤ ㉤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p>정답 해설</p>	<p>② ㉠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로, 이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이지, 가난을 핑계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p>
<p>오답 풀이</p>	<p>① ㉡은 종들에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은 남들에게는 (예년에 비해) 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의복이 제대로 없는 자신에게는 춥고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⑤ ㉤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 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다.</p>
<p>문제 3</p>	<p>[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싸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거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p>
<p>정답 해설</p>	<p>③ [A]에서 화자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인생에 대해 '이다지도 괴로운고'라며 탄식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빈천도 자신의 분수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라며 가난에 대해 체념하며 수용하고 있다.</p>
<p>오답 풀이</p>	<p>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 것이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 ② 나기 싫지도 않은지 너무도 잘 나는 잡초 '싸리피 바랭이'는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낙관적 세계관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곡 장리, 부역, 세금 등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괴로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으며, '설마한들 어이하리'에는 우월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⑤ '이 얼굴 지녀 있어'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도 배고프고, 겨울에도 몸을 가릴 옷이 없고, 벼를 북도 쓸 시루도 쓸 일이 없으며, 제사도 못 지내고 손님 접대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표현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p>

고전산문 [43~45번 지문] [유득공, '유우춘전']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야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27) #사용설명서(p125)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점으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나'는 서기공 앞에서 해금을 연주했다가 비렁뱅이의 음악과 다를 바 없다는 혹평을 듣게 되고, 서기공은 '나'에게 해금 연주의 달인인 유우춘과 호궁기를 찾아가 해금 연주를 배우라고 말한다. 유우춘은 해금 연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나'에게 비렁뱅이의 음악과 유우춘 자신의 해금 연주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해도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는 이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들어 자신에게 해금 연주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나'는 후에 유우춘이 해금 연주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도입부 [EBS 수록]	전개부 [EBS 수록]	논평부 [EBS 수록]
서기공은 '나'의 해금 연주를 혹평한 후 유우춘과 호궁기에 배우라고 말함.	⇒	유우춘이 해금 연주를 그만둔 것을 알고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함.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성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조선 후기에 예술의 향유 계층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생계 수단으로 삼는 직업적 예인도 늘어나게 되었다. 「유우춘전」은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당대에 매우 유명한 해금 연주자였던 유우춘을 주인공으로 하여 예인의 긍지와 예인으로서의 고뇌를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글쓰이는 예인의 예술적 성취를 이해할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주인공의 고뇌에 공감하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일할 될 수 있다.”

“우왓합니다. 그대의 말씀이여!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 장인들이 똑딱거리는 소리, 선비가 개골개골 글 읽는 소리, 무릇 천하의 소리는 모두 먹을 것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해금이나 거지의 해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연주는 거지의 해금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EBS 확인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우춘은 이 세상의 존재들이 소리를 내는 목적은 모두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있다며 자신의 음악과 비렁뱅이의 음악이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우춘의 말에는 비렁뱅이의 음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폄하에서는 안 되지만, 또한 비렁뱅이의 음악은 거리의 화공이 그린 그림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음악에 드높은 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제 해금과 거지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해금은 활대에 말총을 매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다섯 손가락에 모두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그런데 기예는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거지는 깨진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지요.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돈은 한 움큼씩 거둬 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야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지요.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공들은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예이.'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나직이 윙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밖에 들리지 않아 흘깃 곁눈질해 보면 듣던 이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말하지요.

'그만해라.'

악공들은 '예이.' 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 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해금을 안고 가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글을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 갈 무렵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 글을 써 댁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그러면 저는 옆드려 대답합니다.

'모르웁니다.'

'옛날에 혜강(嵒康)이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또 옆드려 대답하지요.

'예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해(奚) 부족의 금(琴)이란 뜻이지, 혜강의 혜가 아니야.'

그리하여 좌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략)

그들은 호방하고 유쾌하면 그것으로 만족일 뿐, 악곡이 신기하지도 대단치도 않은 것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 중 호궁기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가한 날이면 서로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서 해금을 꺼내 켵니다.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손가락은 마음이 움직이는 바를 따라가다가, 연주에 한 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꺾꺾 웃으며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지요.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뿐이야.'

그러나 궁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은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배우려 하니, 또한 딱하지 않습니까?"

우춘은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기 업을 버렸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우춘은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것이다. 우춘이 말한 '기예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 유득공, 「유우춘전」 -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 지은 한문 소설로, 당시 해금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우춘의 삶을 전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우춘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폄하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예술적 이상을 추구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유우춘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기예 연마를 중시하지 않는 세태,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외면하는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예술적 이상과 이를 외면하는 대중으로 인한 예술가의 고뇌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포인트1]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

• 서기공

직접적인 말투로 상대에게 모욕감을 줌.	'이건 거지 깡깡이 소리지 뭐야.', '심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와 같은 말을 통해 '나'의 해금 연주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나'에게 모욕감을 줌.
분류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나'가 지향해야 할 음악을 제시함.	우리나라 음악을 '아악'과 '속악'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특징을 언급함. 또한 비렁뱅이의 음악과 '나'의 음악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나'의 음악이 유우춘과 호궁기의 음악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중함.

[포인트2] 전계 소설로서의 이 작품의 특징

• 전계 소설이란?

⇒ 전(傳) 양식을 차용하면서 인과적 사건 전개와 인물의 갈등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 소설.

작품에 드러난 전(傳)의 특징

- 실존했던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다룸.
 - 실존 인물인 '유우춘'의 행적을 '서기공' 및 '유운경' 등의 인물과 관련지어 제시하며, 영조 무신년(1728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과 같이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음.
- 교훈적 내용을 후대에 남기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남.
 -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유우춘의 말에서 작가의 교훈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인물의 행적 및 사건을 설명한 후 평결부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취함.
 - 유우춘에 대한 행적을 제시한 후 그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과 논평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의 특징이 드러남.

작품에 드러난 소설적 요소

- 개성 있는 인물이 등장함.
 - 해금 연주에서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유우춘과 같은 개성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함.
- 인물이 겪고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됨.
 - '나'와 유우춘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유우춘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고뇌를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됨.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기술[39~42번 지문][터치스크린패널(TSP)의 접촉 인식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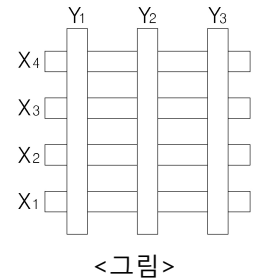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패널이 있는 전자 기기에서, 사용자가 화면상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접촉하면, 이러한 입력 행위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그 작업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는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패널에 터치스크린패널(TSP)이 부착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TSP는 보통 터치패널과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터치패널은 보호 필름, 도체를 증착*시켜 만드는 투명 전도막 등을 중첩시킨 패널로, 접촉이 있으면 그 위치에서 전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난다. 컨트롤러는 터치패널에 전압을 인가하거나 터치패널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집적회로 장치이다. 터치패널에 접촉이 생기면 컨트롤러는 그 위치를 감지한 다음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기의 운영 체제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신호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TSP는 접촉 감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저항막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쓰이는 저항막 방식은 전기가 통하는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을 활용한다. 두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 닻이라는 미세한 절연체 알갱이가 점점이 채워져 있어 평상시 두 전도막은 살짝 떨어진 상태로 있다. 이때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된 상층 투명 전도막을 누르면 그 위치에서 두 전도막이 맞닿게 된다. 컨트롤러는 각 전도막에 교대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다른 전도막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위치를 파악한다. 저항막 방식은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고 두 전도막이 맞닿아야 전압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촉 위치의 인식이 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된 상층 전도막이 훼손되기 쉬워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정전용량 방식은 저항막 방식과 달리 전기 전도성이 있는 손가락이나 물체로 접촉해야만 접촉 인식이 이루어진다. 절연체를 사이에 둔 두 도체 중 한쪽에 전압을 인가하면 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각 도체에 전하가 쌓이는데, 단위 전압당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정전용량이라 한다. 정전용량 방식은 도체들을 절연체인 유리 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그림>과 같이 격자 형태로 증착시켜 만든 투명 전도막을 사용하는데, 두 방향의 도체들과 지면(地面)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자기 정전용량 방식과 두 방향의 도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있다.



<그림>

자기 정전용량 방식은 모든 도체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접촉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도체 라인에는 비접촉 시의 정전용량이 기준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접촉이 발생한 라인에서는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는데, 이런 라인들의 교차점이 접촉 지점으로 판정된다. 즉 X1과 Y2 라인에서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면 X1과 Y2의 교차점인 (X1, Y2)가 접촉 지점으로 판정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다중 접촉이 일어날 경우 비접촉 지점까지 접촉 지점으로 인식되는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

상호 정전용량 방식은 <그림>과 같은 도체 라인을 전압이 인가되는 가로축의 구동 라인과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는 세로축의 감지 라인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컨트롤러는 구동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감지 라인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면 그 위치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판정한다. 이것은 구동 라인 하나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모든 감지 라인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림>처럼 가로축 라인이 4개이고 세로축 라인이 3개일 때는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같은 경우에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 비해 판정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다중 접촉 시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쓰이는 것은 이러한 장점 덕분인 면도 있다.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접촉하여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힘으로써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핀치 기능은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대표적 기능이다.

*증착: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패널이 있는 전자 기기에서, 사용자가 화면상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접촉하면, 이러한 입력 행위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그 작업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는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패널에 터치스크린패널(TSP)(C)이 부착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은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간단한 원리(단계)가 제시되었네요. 익숙한 원리이니 간단하게 정리해줍니다.
 - 1) 사용자 특정 지점 터치(=입력 행위)
 - 2) 기기에서 상응하는 작업 수행
 - 3) 작업 내용 화면 표시
- ② 제가 학생 때는 터치스크린패널(TSP)이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었고 굉장히 미래적인 기술이었는데, 어느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없었던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나요...ㅏㅏ
- ③ TSP라는 제재를 제시해준 것 외에는 건질 게 많은 첫문단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SP는 보통 터치패널과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터치패널은 보호 필름, 도체를 증착*시켜 만드는 투명 전도막 등을 중첩시킨 패널(C)로, 접촉이 있으면 그 위치에서 전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난다. 컨트롤러는 터치패널에 전압을 인가하거나 터치패널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집적회로 장치(C)이다. 터치패널에 접촉이 생기면 컨트롤러는 그 위치를 감지한 다음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기의 운영 체제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신호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TSP의 구성 요소가 제시되었습니다. '터치패널'과 '컨트롤러'입니다.
- ② '터치패널'은 쉽게 생각하면 전기가 흐르는 판입니다. 접촉이 발생하면 전기 신호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보호 필름', '도체', '투명 전도막' 등 '터치패널'의 구성 요소들도 제시되었는데, 이 내용은 굳이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구성 요소가 중요했다면, 이렇게 나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터치패널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터치패널의 특성이 되는 것이지요.
- ③ '컨트롤러'는 '터치패널'이라는 판에 전압을 넣는 장치이자, 판에서 전기 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 ④ 마지막 문장이 꽤 길고, 정보량이 많습니다. 원리, 단계에 대한 내용이니 끊어서 정리해줍니다. 총 5개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터치패널 접촉(=전기 신호 변화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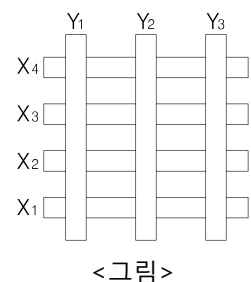
- 2) 컨트롤러가 접촉 위치 감지
- 3) 컨트롤러가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 4) 디지털 신호 운영 체제에 전달
- 5) 해당 신호에 상응하는 작업 수행
- ⑤ 이렇게 한 호흡에 읽기 힘든 긴 문장은,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TSP는 접촉 감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저항막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쓰이는 **저항막 방식**은 전기가 통하는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을 활용한다. 두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 닷이라는 미세한 절연체 알갱이가 점점이 채워져 있어 평상시 두 전도막은 살짝 떨어진 상태로 있다. 이때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된 상층 투명 전도막을 누르면 그 위치에서 두 전도막이 맞게 된다. 컨트롤러는 각 전도막에 교대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다른 전도막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위치를 파악한다. 저항막 방식은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고 두 전도막이 맞닿아야 전압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촉 위치의 인식이 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된 상층 전도막이 훼손되기 쉬워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TSP의 접촉 감지 방식은 ‘저항막 방식’, ‘정전용량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 ② 먼저 ‘저항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을 활용하는데, 이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은 사이에 알갱이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전도막을 누르게 되면, 즉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위쪽 전도막이 눌러져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의 전도막과 맞게 됩니다.
- ③ 다음 문장에서 ‘컨트롤러는 각 전도막에 교대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다른 전도막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두 전도막이 맞닿아 있지 않을 때는 한 쪽에 전압을 걸어도 다른 쪽에서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전도막이 맞게 되어야 다른 쪽 전도막에도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절연체의 특성을 설명해주었다면 더 쉽게 추론할 수 있었겠으나, 굳이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수적인 추론은 아니었 나봅니다.
- ④ 저항막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장점 1) 제작비가 저렴함
 장점 2) 접촉 위치의 인식이 꽤 정확함
 단점) 내구성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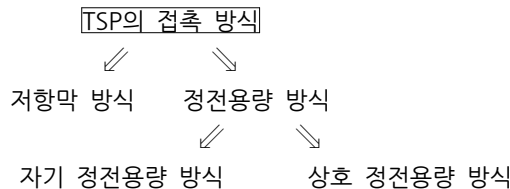
정전용량 방식은 저항막 방식과 달리 전기 전도성이 있는 손가락이나 물체로 접촉해야만 접촉 인식이 이루어진다. 절연체를 사이에 둔 두 도체 중 한쪽에 전압을 인가하면 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각 도체에 전하가 쌓이는데, 단위 전압당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정전용량(C)**이라 한다. 정전용량 방식은 도체들을 절연체인 유리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그림>과 같이 격자 형태로 증착시켜 만든 투명 전도막을 사용하는데, 두 방향의 도체들과 지면(地面)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자기(self) 정전용량 방식**과 두 방향의 도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정전용량 방식과 저항막 방식의 차이점이 먼저 제시되었습니다. 저항막 방식에서는 전도성이 없는 물체로 접촉해도 인식이 가능한데,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전도성이 있는 물체로 접촉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② 정전용량 방식의 작동 원리는 저항막 방식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함께 준 것 같네요. <그림>을 참고하면서 지문 내용을 읽어봅시다.

- ③ 지금 <그림>에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림>에 있는 가로선(X)과 세로선(Y) 사이에는 절연체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도체, 즉 X축이나 Y축 중 하나에 전압을 걸면, 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고 각 도체에 전하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도체 사이에는 절연체가 끼워져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 일단 우리는 절연체가 사이에 있어도 전기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 ④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쌓이는 양을 '정전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전용량 방식은 이 '정전용량'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⑤ 정보량이 꽤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큰 흐름이라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 ⑥ '자기 정전용량 방식'과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차이점은 도체들과 '지면'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느냐, 도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느냐인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겠지요.

자기 정전용량 방식은 모든 도체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접촉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도체 라인에는 비접촉 시의 정전용량이 기준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접촉이 발생한 라인에서는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는데, 이런 라인들의 교차점이 접촉 지점으로 판정된다. 즉 X1과 Y2 라인에서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면 X1과 Y2의 교차점인 (X1, Y2)가 접촉 지점으로 판정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다중 접촉이 일어날 경우 비접촉 지점까지 접촉 지점으로 인식되는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여기서부터 정말 <그림>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한 문장 읽고 <그림> 한 번 봐도 됩니다.
 - ② 먼저 '자기 정전용량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모든 라인(가로선, 세로선)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합니다.
 - ③ 이때 모든 라인에는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인에 접촉이 발생하면, 그 라인에서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X1 라인 중 어떤 곳에 접촉이 발생하면 X1라인에서는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 ④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에 접촉이 감지되면, 그 두 라인의 교점을 접촉점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주었는데, <그림>과 함께 이해할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⑤ 마지막 문장에서 자기 정전용량 방식이 가지는 단점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히 '고스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밑줄을 보아 문제에서 다룰 것 같기는 한데, 지문을 읽을 때는 이런 문장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충분히 고민하게 될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 (오답률 Best5 41번 문제 해설 참고)

상호 정전용량 방식은 <그림>과 같은 도체 라인을 전압이 인가되는 가로축의 구동 라인과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는 세로축의 감지 라인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컨트롤러는 구동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감지 라인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면 그 위치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판정한다. 이것은 구동 라인 하나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모든 감지 라인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림>처럼 가로축 라인이 4개이고 세로축 라인이 3개일 때는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같은 경우에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 비해 판정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다중 접촉 시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쓰이는 것은 이러한 장점 덕분인 면도 있다.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접촉

하여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힘으로써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핀치 기능은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대표적 기능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마찬가지로 <그림>을 참고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상호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가로선(X)을 ‘구동 라인’으로, 세로선(Y)을 ‘감지 라인’으로 설정합니다.
 - ② ‘자기 정전용량 방식’이 모든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였다면, ‘상호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구동 라인’에만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 다음 감지라인에서 정전용량을 감지하는데, 여기서 ‘낮은’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면 잘 읽은 것입니다.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었을 때 접촉이 있었다고 판정하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단어가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진짜 독해 실력입니다.
 - ③ 다음에 제시된 내용이 좀 까다로운데, <그림>과 함께 따라가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 ④ ‘상호 정전용량 방식’은 (4x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로선(구동 라인) 하나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세로선(감지 라인)을 하나씩 순서대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X1에 전압이 들어가는 동안 Y1, Y2, Y3를 하나씩 점검하기 때문에 가로선 하나에 세 번의 세로선 점검 작업이 필요하고 가로선이 4개이기 때문에 점검 작업은 총 12번이 필요한 것이지요.
 - ⑥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제시되었습니다.
- 장점 : 다중 접촉 시 고스트 현상 발생 X
 단점 :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 비해 판정 시간이 오래 걸림

*증착 :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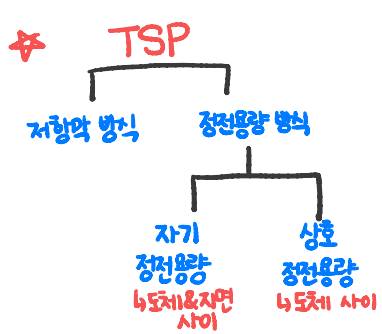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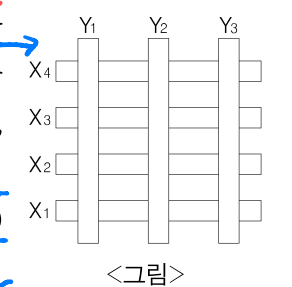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패널이 있는 전자 기기에서, 사용자가 화면상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접촉하면, 이러한 입력 행위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그 작업 내용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는 해당 기기의 디스플레이패널에 터치스크린패널(TSP)이 부착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소재 소개**

TSP는 보통 터치패널과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터치패널은 보호 필름, 도체를 증착*시켜 만드는 투명 전도막 등을 중첩시킨 패널로, 접촉이 있으면 그 위치에서 전기 신호의 변화가 일어난다. 컨트롤러는 터치패널에 전압을 인가하거나 터치패널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집적회로 장치이다. 터치패널에 접촉이 생기면 컨트롤러는 그 위치를 감지한 다음 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기의 운영 체제에 전달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신호에 상응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과정**

TSP는 접촉 감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① 저항막 방식과 ② 정전용량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쓰이는 저항막 방식은 전기가 통하는 두 겹의 투명 전도막을 활용한다. 두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 닷이라는 미세한 절연체 알갱이가 점점이 채워져 있어 평상시 두 전도막은 살짝 떨어진 상태로 있다. 이때 손가락이나 터치 펜으로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된 상층 투명 전도막을 누르면 그 위치에서 두 전도막이 맞닿게 된다. 컨트롤러는 각 전도막에 교대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다른 전도막에서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진 위치를 파악한다. 저항막 방식은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고 두 전도막이 맞닿아야 전압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접촉 위치의 인식이 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된 상층 전도막이 훼손되기 쉬워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

정전용량 방식은 저항막 방식과 달리 전기 전도성이 있는 손가락이나 물체로 접촉해야만 접촉 인식이 이루어진다. 절연체를 사이에 둔 두 도체 중 한쪽에 전압을 인가하면 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각 도체에 전하가 쌓이는데, 단위 전압당 축적되는 전하의 양을 정전용량이라 한다. 정전용량 방식은 도체들을 절연체인 유리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그림>과 같이 격자 형태로 증착시켜 만든 투명 전도막을 사용하는데, 두 방향의 도체들과 지면(地面)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자기(self) 정전용량 방식과 두 방향의 도체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전용량을 활용하는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있다. **자기 정전용량 방식**은 모든 도체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접촉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도체 라인에는 (비접촉 시의 정전용량이 기준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접촉이 발생한 라인에서는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는데, 이런 라인들의 교차점이 접촉 지점으로 판정된다. 즉 X₁과 Y₂ 라인에서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면 X₁과 Y₂의 교차점인 (X₁, Y₂)가 접촉 지점으로 판정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다중



접촉이 일어날 경우 비접촉 지점까지 접촉 지점으로 인식되는 **고스트 현상**이 발생한다. **단점**

상호 정전용량 방식은 <그림>과 같은 도체 라인을 전압이 인가되는 가로축의 구동 라인과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는 세로축의 감지 라인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컨트롤러는 구동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감지 라인에서 미리 설정된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면 그 위치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판정한다. 이것은 구동 라인 하나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모든 감지 라인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림>처럼 가로축 라인이 4개이고 세로축 라인이 3개일 때는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같은 경우에 (4+3)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 비해 판정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다중 접촉 시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 쓰이는 것은 이러한 장점 덕분인 면도 있다.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접촉하여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힘으로써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핀치 기능**은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대표적 기능이다. **장점**

* 증착: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 가로: 전압 인가됨
세로: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됨

→ 차이점
자기 정전용량 : 높은 정전용량 → 접촉 라인 판정
상호 정전용량 : 낮은 정전용량 → 접촉 지점 판정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⑤

- ① TSP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디스플레이패널 내부에 장착되기도 한다. → '내장되어 있어' ○
- ② TSP의 컨트롤러는 접촉이 일어난 화면상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다. → '디지털 신호로 변환' ○
- ③ 스마트폰에서 핀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TSP가 필요하다. → 고스트 현상은 상호 정전용량 방식이고, 핀치 기능은 자기 정전용량 방식의 장점을 살린 기능. ○
- ④ 자기 정전용량 방식에서는 전압이 인가되는 도체 라인과 정전용량의 변화가 감지되는 도체 라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 모든 라인에 순차적으로 전압 인가. ○
- ⑤ 저항막 방식은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접촉 시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X) 접촉이 일어나 두막이 맞닿은 지점만 인식하므로 오인해 위치 파악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X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① ㉠은 접촉이 이루어진 쪽의 투명 전도막을 반드시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 '안 그러면 전도막끼리 맞닿기 어려우므로' ○
- ② ㉠은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쪽의 투명 전도막의 전압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인식한다. → '다른 전도막에서의 전압 변화를 측정' ○
- ③ ㉡은 전기 전도성이 없는 물체로 화면을 접촉하면 컨트롤러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 '자음 확인' ○
- ④ ㉡은 유리판에 도체들을 증착·배열하는 방식에 따라 자기 정전용량 방식과 상호 정전용량 방식으로 구분된다. → 배열 방식은 격자 형태로 같음. 전압 인가 방식에 다름. X
- ⑤ ㉠과 ㉡은 모두 컨트롤러가 접촉이 이루어진 화면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투명 전도막의 도체 라인에 전압을 인가한다. ○

→ 자기 확인

41. 윗글의 <그림>을 통해 ㉠에 대해 설명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①

- ① (X₁, Y₂)와 (X₂, Y₁)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₁, X₂, Y₁, Y₂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₁, Y₂)와 (X₂, Y₁)뿐만 아니라 (X₁, Y₁)과 (X₂, Y₂)에서도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O
- ② (X₁, Y₂)와 (X₂, Y₁)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₁, X₂, Y₁, Y₂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₁, Y₂)와 (X₂, Y₁)뿐만 아니라 (X₁, Y₁)과 (X₂, Y₂)에서도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X
- ③ (X₁, Y₂)와 (X₂, Y₁)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₁, X₂, Y₁, Y₂를 확인할 때 모두 기준값과 다른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₁, Y₁)과 (X₂, Y₂)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X
- ④ (X₁, Y₂)와 (X₂, Y₁)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₂, Y₁을 확인할 때 기준값보다 높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₂, Y₁)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X
- ⑤ (X₁, Y₂)와 (X₂, Y₁)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X₂, Y₁을 확인할 때 기준값보다 낮은 정전용량이 감지되므로, (X₂, Y₁)에서만 접촉이 일어났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X

크위전 고스트 현상이 무엇인지, 어느 방식에서 일어나는지를 알면 순서대로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고스트 현상은 접촉 지점이 아닌 자점들도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한 지점만 접촉이 인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④, ⑤ 순서. ③은 아예 교차점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고.
고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자기 정전용량 방식은 개량보다 '높은 정전용량' 인식하므로 ②도 고.

4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가각도 <보 기> 세세각도

㉠ 구동 라인이 m개이고 감지 라인이 n개인 상호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패널에서, 컨트롤러가 구동 라인과 감지 라인의 모든 교차점에 대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산출한 정보를 프레임 정보라고 한다. 기기의 전원이 온(on) 상태가 되면, 컨트롤러는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여 운영 체제에 전달하기 시작한다. 통상적으로 프레임 정보는 초당 100회 이상 산출되어야 부드러운 접촉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임 정보의 산출 속도를 더(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 구동 라인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는 동안) 모든 감지 라인을 동시에 점접하는 방식이다. (단, 오작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나 이 방식을 쓰면 m만큼의 횟수만 거치면 된다.

- ① ㉠의 하나의 프레임 정보에서 모든 교차점의 정전용량이 기준값과 동일하다면 비접촉 상태로 판정되겠군. O → 더 낮은 자점을 접촉 지점의 인식하므로
- ② ㉠의 하나의 프레임 정보에서 세 개의 교차점의 정전용량이 기준값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겠군. O → 하나씩 다 검사하므로 세 자점에서 접촉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인식이 될 것이다
- ③ ㉡를 개발하여 적용한 ㉠에서 컨트롤러가 하나의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m^m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군. X
- ④ ㉡가 적용되지 않은 ㉠에서 컨트롤러가 초당 100회의 프레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초당 100×(m×n)번의 확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겠군. O → 자문 확인
- ⑤ ㉡를 개발하여 적용한 ㉠은 가로축 라인 및 세로축 라인의 개수가 각각 m개와 n개인 자기 정전용량식보다 접촉 위치의 판정 시간이 더 짧겠군. O → 아예에 반에 산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

하나의 프레임이다
모든 교차점을 검사하므로
구동 라인의 수만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월합니다. 그대의 말씀이여!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 장인들이 푹푹거리는 소리, 선비가 개골개골 글 읽는 소리, 무릇 천하의 소리는 모두 먹을 것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해금이나 거지의 해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연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 제 해금과 거지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해금은 활대에 말총을 매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 듯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다섯 손가락에 모두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그런데 기에는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거지는 깨진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지요.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돈은 한 움큼씩 거둬 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야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지요.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악공들은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에이.’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는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밖에 들리지 않아 흘끗 걸눈질해 보면 듣던 이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말하지요.

‘그만해라.’
악공들은 ‘에이.’ 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 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해금을 안고 가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글을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 갈 무렵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